

# 축구

2

2020년 5월 11일 월요일  
스포츠동아 제3325호



손흥민 이동국

## 표창장 퇴소·덕분에 세리머니 손흥민·이동국에 지구촌 들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구촌 축구가 멈춰선 가운데 한국축구의 독보적 존재감이 화제다. 특히 손흥민(28·토트넘)과 이동국(41·전북 현대)이 주목받았다.

손흥민은 국군 홍보대사라고 칭할 만하다. 손흥민이 댄 남자축구가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아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자 우리의 징병제나 병역혜택에 대한 세계한 정보가 세계로 퍼져나갔다. 지난달에는 기초 군사훈련 입소로 떠들썩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입소 시기와 장소 등이 의심을 샀다. 흐릿한 입소 장면이 메인인 장식하기도 했다. 8일에는 훈련소 수료식으로 축하했다. 행군, 총검술 등을 모범적으로 해내며 큰 상까지 받았다. 우수한 훈련병에게 주는 필승상을 수상했다. 특히 사격솜씨가 돋보였다. 25m 영점 사격에서 10발 모두를 명중시켰다. 손흥민은 한 달여의 국내생활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영국으로 떠난다. 2주간의 자가격리를 거쳐 팀 훈련에 복귀할 예정이다.

K리그 개막이 시선을 집중시킨 가운데 이동국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8일 생중계된 개막전(전북-수원 삼성)의 트위터 누적 시청자수는 300만 명을 훌쩍 넘었다. 중계권도 36개국에서 사갔다. 이동국에게도 뜻 깊은 개막이었다. 헤딩 결승골로 팀의 1-0 승리를 이끌었다. 특히 그의 세리머니는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헌신하는 의료진을 응원하는 '덕분에 챌린지' 세리머니였다.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준 이동국에게 칭찬이 쏟아진 이유다.

최현길 기자 choi2@donga.com



**Lotto 6/45 910회 당첨번호** (추첨일: 2020년 05월 09일)

1등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1	11 17 27 35 39	1	31
1등 총 당첨금: 1,917,767,643원			

\*1등 총 당첨금 1등에 당첨된 총 당첨금의 50% 이상입니다. 2등 당첨금은 총 판매액의 50% 이상입니다.

등위 및 당첨게임 수	당첨금(원)	당첨금 내역
1등 6개 숫자 일치	21	941,316,375 원 총 당첨금 중 48%가 1등 당첨금에 배분된 금액의 75%
2등 5개 숫자 일치 + 1개 보너스 일치	72	45,758,435 원 총 당첨금 중 46%가 2등 당첨금에 배분된 금액의 12.5%
3등 5개 숫자 일치	2,684	1,222,943 원 총 당첨금 중 46%가 3등 당첨금에 배분된 금액의 12.5%
4등 4개 숫자 일치	128,516	50,000 원
5등 3개 숫자 일치	2,074,354	5,000 원

\*당첨금은 1회당 당첨금에 기준합니다. (세금 공제 전)

• 동행복권 콜센터: 지역번호 1588-6450 • 인터넷 당첨번호 안내: www.dhlottery.co.kr  
당첨금 지급기간: 해당 회차 지급제일로부터 1년까지

복권 구입시 유의 사항  
• 복권은 만일 1년 10일만까지 구입가능 수 있습니다. • 동행복권 복권을 구매하거나 당첨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지난 회차 복권은 동행복권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 동행복권센터 080-800-0500 www.khan.dhlottery.co.kr

그 어느때보다 뜨거웠던 무관중 개막...K리그 '행복레이스'는 시작됐다

# TV로, 유튜브로...전세계 사로잡은 K리그

BBC·스카이스포츠 등 해외유명매체 전복-수원 개막전 메인 홈페이지에 올린 리그 1호골 이동국·2골 폭발 양동현 11년만에 컴백 이청용까지 '영동본색'

초록 그라운드에 꽃이 피었다. 우리의 K리그가 돌아왔다. 8일 전주성에서 끝난 전북 현대-수원 삼성의 K리그1 공식 개막전(1-0 전북 승)을 시작으로 행복의 레이스를 시작했다. 당분간은 올 것 같지 않던 꿈같은 시간이다.

전 세계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맞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지구촌을 재앙으로 몰아갔다. 전염병으로 파괴되고 마비된 일상 속에 인간은 한없이 미약한 존재임 다시금 드러났다.

그래도 희망은 있었다. 어린이날(5월 5일) 팽파르를 울린 프로야구 KBO리그

프로축구 경기결과		▶ 8~10일	
전주	전북	1	: 0 수원
울산	울산	4	: 0 상주
인천	인천	0	: 0 대구
광주	광주	0	: 2 성남
포항	포항	2	: 0 부산
춘천	강원	3	: 1 서울

에 이어 K리그가 2020시즌 첫 결음을 했다. 많은 나라들이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를 주목했다. 텅 빈 스탠드로나마 프로스포츠가 시작됐다는 것은 사회가 서서히 안정되고 있고,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전북-수원전은 세계 36개국에 TV, 온라인 스트리밍, 소셜미디어(SNS) 등 다

양한 채널로 생중계됐다. BBC, 스카이스포츠 등 해외 유력 매체들의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K리그 개막 소식이 오르고, 실시간으로 이뤄진 SNS 토론에선 지구촌 식구들이 얼마나 '평범한 일상'을 바라며 축구에 배고파했는지 확인됐다.

물론 과거 익숙했던 풍경과는 달랐다. 선수단과 구단 임직원 외의 출입인원은 극소수였고, 엄격한 신분 확인과 발열체크 등의 과정이 뒤따랐다. 이는 K리그 1·2 라운드 휘슬이 울린 전국의 모든 경기장에서 대동소이했다.

피치 위의 모습은 기대보다는 조금 멍멍했다. 포옹과 악수가 사라졌고, 물을 나눠 마시고 수건을 함께 쓰는 장면이 사라졌다. 또 취재진과 선수들이 인터뷰를 위해 뒤섞이는 믹스존 역시 폐쇄됐다.

그럼에도 감동은 충분했다. 수원전 결승골 직후 이동국의 '덕분에 챌린지' 세리머니가 출발이었다. 9일 인천전용경

기에서 격렬한(0-0 무) 인천 유니티드와 대구FC, 10일 춘천송암스포츠타운에서 만난 강원FC와 FC서울 선수단(3-1 강원 승)도 킥오프를 앞두고 같은 포즈로 기념촬영을 했다. K리그 영웅들이 이 시대 영웅들에게 전달하는 아름다운 메시지가였다.

컴백한 스타들의 맹활약 역시 흐릿한 불거렸다. 오랜 유럽생활을 마치고 11년 만에 K리그로 컴백한 이청용(울산 현대)은 상주 상무와 북구전(9일)에서 농익은 클래스를 증명하는 퍼포먼스로 팀의 4-0 대승을 이끌었다. 2년간 일본 J리그에서 뛰던 뒤 올해 초 성남FC에 합류한 골잡이 양동현은 광주FC와 원정경기에서 2골을 몰아쳐 팀의 2-0 완승에 앞장섰다. 특히 프로 사령탑 첫 도전에 나선 성남 김남일 감독의 데뷔전 승리라 의미가 컸다.

춘천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서울 주세종(왼쪽 3번째)이 10일 춘천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강원과의 원정 개막전 도중 상대 수비를 제치고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춘천 | 주현희 기자 teth1147@donga.com

## 다시 맞은 '영동시대'...비상 꿈꾸는 강원FC

23일 성남·30일 전북전 강릉서 치러  
강릉 유별난 축구사랑...승전보 자신

장내에 울려 퍼진 노래 '소양강 처녀'를 개사한 응원가가 아니었다면 홈팀 구분조차 어려울 뻔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뚫고 '하원구 K리그 2020'이 막을 올렸으나 분위기가 뜨겁지 못했다. 무관중 경기의 한계다.

10일 춘천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강원FC-FC서울의 K리그1(1부) 1라운드도 그랬다. 홈 관중의 함성과 적을 향한 아우가 빠진 그라운드는 모두에게 똑같은 조건이었다.

그런데 강원 입장에서 춘천도 '사실상 원정'이다. 클럽하우스가 위치한 강릉에서 차장으로 2시간 이상 이동하는 수고를 감수해야 한다. 오히려 "서울과 수원 삼성, 성남FC 등 수도권 팀들에 유리하다"는 강원 구단 내부의 불만도 여전히 높다. 서울 선수단은 아예 춘천 원정을 위해 인근 리조트에서 하루 숙박을 하며 피로를 줄였으니 강원은 더 아쉬울 법하다.

다행히 오랜 고민의 끝이 보인다. 강원은 올 시즌

부터 다시 '영동시대'를 맞이한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직전 강릉을 떠나 '장거리 안방'을 사용한 강원은 올해를 기점으로 정규리그 홈경기를 춘천과 강릉에서 분산해 치른다. 당장 23일 성남, 30일 전북 현대와의 3·4라운드 홈 대결은 강릉에서 치른다. 특히 강릉의 축구 사랑은 엄청나다.

겨우내 알차게 전력을 보강하고 조직력을 높인 강원은 강릉 홈경기 개최와 함께 또 한번의 비상을 꿈꾸고 있다.

춘천 | 남정현 기자

### ▶ 포항-부산전 서포터스·구단 신바람 개막

K리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정상적으로 개막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과 각 구단이 철저한 방역과 각고의 노력을 통해 이뤄낸 값진 결과다. 모든 경기는 당분간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구단들은 팬들이 찾을 수 없는 경기장의 분위기를 활기차게 살려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0일 포항스틸야드에서 펼쳐진 포항 스틸러스-부산 아이파크전의 분위기도 8~9일 벌어진 경기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포항 서포터들은 직접 관중석 일부를 꾸몄다. 서포터스는 자발적으로 서포터석을 장식하기 위해 구단에 문의했고, 포항은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서포터스는 경기 하루 전 정해진 시간에 경기장을 찾아 서포터석에 각종 깃발과 응원 깃발을 부착했다. 포항 홈과 원정 유니폼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의 사진이 담긴 6개의 깃발을 별도로 제작해 설명한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바꿔놓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또한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했다는 것이 포항 홍보 담당자의 설명이다.

### 결개 관객들·응원 깃발 넘실 골 터지자 '해병대 함성' 쩌렁



K리그 각 구단은 무관중 경기로 침체될 수 있는 경기장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포항은 10일 안방에서 부산과 시즌 첫 경기를 치렀다. 포항 서포터들은 각종 깃발로 서포터석을 장식했고, 포항 구단은 관중들의 함성을 담은 응원 파일을 경기 시작 1시간 전부터 틀었다.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구단 역시 별도의 작업을 통해 경기장 분위기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애썼다. 경기 시작 1시간여 전부터 관중들이 내는 듯한 일정 음향이 나오는 파일을 구해서 구장 내에 틀었다. 관중석은 비었지만 썰렁함을 최소화하는 데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포항이 공격할 때 환호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파일도 준비해 상황에 맞게 틀었다. 부산이 공격을 주도할 때는 아우 비슷한 음향 파일을 활용하기도 했다.

서포터의 응원함성도 녹음파일로 재생했다. 전반 23분 일류첸코의 선제골이 터지자 포항이 자랑하는 해병대 응원 소리도 흘러나왔다. 관중이 있는 상황과 최대한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음향이 경기 내내 흘러나오니 생생하진 않았지만 분위기는 괜찮았다.

포항 홍보 담당자는 "먼저 개막한 프로야구와 축구 연습경기 등을 지켜보면서 무관중으로 개막할 경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고, 하나씩 실행해왔다"며 "아무래도 관중이 있는 상황과는 많이 다르겠지만 썰렁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 | 최용성 기자 gtyong@donga.com